

‘장애인선교주일’을
지킵시다!

2021.4.18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2021.4.18

장애인선교주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Contents

1 2021년 장애인선교주일 목회서신(이철 감독회장)

2 장애인선교주일 설교문(정현범 목사)

3 농아교회연합회 소개(함혜원 목사)

4 인천농아교회(이경민 목사)

5 광림교회 사랑부(담당 김기민 목사)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감리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는 매년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전후 주일을 ‘장애인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임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며,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책임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장애인선교주일 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예수님은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이사야 61:1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자와 포로 된 자, 눈 먼 자와 눌린 자에게 복음과 자유, 다시



보게 함과 자유롭게 하는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따로 없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수많은 치유사건의 주인공이자 파트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나병과 중풍병자 등 온갖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세리와 죄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눅14:13)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회의 약자와 소외 자들에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장애와 비장애인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창조질서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사역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번 장애인선교주일을 통하여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워져 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복음전도와 함께 사회의 가난한 자를 위한 취업 알선과 대여금고 등의 사역과 교도소 심방, 노예제 반대와 어린이의 교육 등의 사회의 약자와 소외 자에 대한 사회봉사를 통하여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없는 사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감리교회의 전통입니다. 한국감리교회 역시 1930년 자치시대를 열면서 신앙고백인 교리적 선언과 함께 신앙의 실천적 목표로서 사회신경을 채택하여 인류는 겨레와 나라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같은 자녀임을 구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장애인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무너뜨리신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지를 드러내는 감리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아 모든 사람들이 성별, 연령, 계급, 지역,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배격하며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에 헌신하고, 온 국민이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서로 도우며 사는 사회건설에 매진한다는 사회신경을 확인하고, 믿음의 식구에게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와 격려하며 품어주는 장애인선교주일로 지켜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감리교회”를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회장 이 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 현 범 목사

동부연회 영진교회 담임

농아선교후원회 회장

| 마가복음 10:46~52

오늘은 부활절 제3주이며 장애인선교주일입니다. 장애인선교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이웃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과 선교에 힘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은 많지 않았지만 매월 마지막 주일의 주일오후예배는 아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교인이 같은 지방의 재활원 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재활원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정신장애인으로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사고나 살아가면서 어떤 충격에 의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과 같이 예배하면서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재활원의 목사님이 예배하러 온 원생들에게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게 하였는데 그날 어떤 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자, “하나님!”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 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니다. 아멘.’ 합니다. 그러자 폭소가 터졌고 예배는 은혜와 웃음이 넘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애인 시설인 재활원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없애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형제자매라는 것을 교인들, 특별히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며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인지를 배우며 나누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장애인에 대한 많은 편견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병신이라고 하며 그 차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병신육갑한다고 하는 등 언어폭력, 특히 장애인에 대하여 비하하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제 친구 중 한쪽 다리가 불편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려서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주사를 잘못 맞아서 한쪽 다리에 마비가 와서 그렇게 된 친구도 있고 사고로 그렇게 된 친구도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는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인 것에 의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차별하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심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장애인입니다. 안경을 쓰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발 없거나 불편하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잘 알아듣지 못하고 손이 없거나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신체의 한 부분이 불편한 것이라면 눈이 불편해서 안경을 쓰는 것도 장애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심합니다. 특히 동남아나 흑인에 대해서는 차별이 더욱 심합니다. 올림픽 때 백인에 대한 홈스테이 신청자는 많았지만 흑인이나 동남아인에 대한 신청자는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외모나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이 심하다고 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장애인선교주일을 맞이하여 맹인 거지 바디매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과 같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 주신 기적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셨

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그러자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누구의 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를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주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8:11). 분명한 죄인으로 그것도 현장에서 잡힌 죄인이지만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빌라도 총독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죽인 일을 이야기 할 때 주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고 하시며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인과 죄인에 대하여,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하고 함부로 입을 놀려서 절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외모와 언어와 빈부귀천을 초월한 하나님의 가족이자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편견을 가지거나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매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매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매오라고 하였는데 바디매오라는 뜻은 디매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어떻

게 보면 바디매오라는 이름을 반복함으로 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디매오에 대하여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잠시 머무신 후에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매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 가에 앉았다가’라는 상세한 표현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2절의 마지막에 ‘길에서’라는 말과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50절에서 ‘뛰어 일어나’라는 말과도 대조시키기 위해 앉아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있던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뛰어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그는 그 길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길 가에 앉아 있던 맹인 거지 바디매오,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다가 뛰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길 가에 앉아 있다가 뛰어 일어나고 이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눈을 떠서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맹인 거지 바디매오의 행동 하나하나를 상세히 표현함으로 그 행동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제자로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길가에 앉아 있던 바디매오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길가에서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을 바디매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면서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메시아적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고 합니다. 다윗 왕국의 재건을 대망하는 군중들의 외침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호칭으로 그 당시의 정

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참으로 위험하고 불온한 것으로써 발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꾸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매오는 이러한 꾸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더욱 크게 소리칩니다. 이어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릅니다.

그러자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여기서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는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물을 버렸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물이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생활수단의 전부인 것처럼 가난한 맹인 거지에게는 겉옷이 그러합니다. 어찌 보면 바디매오의 겉옷을 내버리는 행동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바친 한 과부의 행위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디매오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과거와의 단절로 맹인 거지로서의 생활을 벗어나기 시작한 삶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행동의 변화와 겉옷을 내버리는 삶의 변화에 이어 그는 주님께서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보기를 원하나다.’ 라고 대답합니다. 처음에 그는 자비를 구했습니다. 보통의 거지들처럼, ‘한 톨 줍쇼!’ 하는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거지가 보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물질 축복을 바라던 맹인 거지가 눈 뜨기를 원하는 구도자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화되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맹인 거지로서 먹고 마시는 막연한 생활에서 눈을 떠서 진정한 삶을 누리고 싶은 삶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의 이러한 믿음을 칭찬하시며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맹인 거지 바디매오에 대하여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자세히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바디매오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매오를 말씀 한 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매오의 고백대로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신 예수

님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니
 이다.’라는 신앙고백이 있, 주님은 그때부터 세 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장차 예
 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
 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주
 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제자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
 하고자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누가 높으냐는 자리다툼을 하는 등 지극히 인
 간적인 출세와 권력을 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여러
 고에서 나가실 때에 맹인 거지 바디매오를 고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바
 디매오처럼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고백, 내가 메시아임을 분
 명히 아는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고난
 받는 종으로서,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죽으러 간다. 너
 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디매오처럼 똑바로 깨닫고 이제는 3년 동안 나와 동고
 동락한 제자답게, 바디매오처럼 길 가에 앉아 있지 말고 이제는 그 길에서 뛰어
 일어나고 겹옷을 내던지고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디매
 오처럼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은 아닐까
 요?.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냐?’고, 혹시 ‘
 네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 눈은 감겨 있는 제자 아니냐?’고, 혹시 ‘네가
 영적 맹인이 아니냐?’고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맹인 거지 바디매오와 영적 맹인 제자들을 대조시키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
 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죽음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감리교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우리의 형제자매로, 우리 식구로 눈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디매오처럼 영적 눈을 뜨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바디매오처럼 주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농아교회연합회



함혜원 목사
농아선교후원회 총무

I. 농아인 선교현황

우리나라에는 약 35만여 명의 청각장애인이 있다. 그 가운데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아인들이 15만 명 정도라고 한다. 많은 장애인들이 교회를 다니며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농아인들은 언어가 다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접하기가 어려워 복음을 받아들이는 농아인들의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농아인들의 복음화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10% 미만으로 파악됨).

농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농아교회는 수어로 예배하는 교회이다. 찬양과 기도, 설교, 교육, 봉사, 교제 모두 수어로 한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농아인들의 신앙생활은 매우 헌신적이며 열정적이다.

전국에는 교단을 불문하고 150여 개의 농아교회(농아부 포함)가 있다. 그 가운데 감리회에 속한 15개의 교회는 수적으로 적은 편이나 농아인 교역자들의 영성이 깊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크며 교회의 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다. 농아인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아 농아인 성도들의 현금만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기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Ⅱ. 설립 목적 및 동기

기독교대한감리회 농아교회연합회(이하 감농연)는 전국에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14개 교회가 농아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연합한 단체이다.

감농연의 공식적인 시작은 1992년 5월, 서울농아교회와 서산농아교회, 원주농아교회의 교역자들이 모여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농아인 청년들의 목회자 양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면서부터이다. 이전부터 농아교회 간의 교제는 항상 돈독하여 해마다 수련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함께 해왔으나 목회자 양성을 계기로 공식적인 연합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1993년, 5명의 농아인 학생이 감신대에서 수학하면서 본격적으로 감리교 농아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여 2021년 3월 현재, 감농연의 회원교회가 14개로 확대되었다.

감농연은 농아선교를 위해 연합하여 개별교회가 진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을 북돋우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소속 농아인 교역자들이 목회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며 연 2회의 교역자 영성수련회를 통해 사명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Ⅲ. 회원교회 현황

1974년 설립된 서울농아교회를 시작으로 1983년 서산농아교회, 1988년 원

주농아교회가 설립되었다.

전국에 설립된 농아교회의 교역자들 가운데는 서울농아교회에서 파송된 교역자들이 많이 있다. 서울농아교회에서 전도사로 훈련을 받으며 학업을 마친 후, 교회를 개척해 농아선교의 지경을 넓혀나갔다.

1990년 부천농아교회, 1993년 주사랑농아교회, 1995년 청주 좋은교회 농아부, 1997년 인천농아교회, 1998년 공주농아교회, 1999년 영등포농교회, 2003년 아산농아교회, 2005년 보성 포도원농아교회, 2006년 논산농아교회, 2007년 사천 한려농아교회, 2009년 일본 나고야 임마누엘데프교회, 2017년 창원 빛농아교회의 순으로 교회가 설립되어 각 지역의 농아인 영혼 구원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

2021년 현재 감농연 회원교회는 14개 교회(일본지방에 속해 있던 임마누엘데프교회가 선교사 파송교회로 바뀌어 회원교회에서 제외됨), 정회원 목사 14명, 협동회원 목사 1명, 전도사 1명으로 모두 16명의 교역자들이 사역하고 있다. 교인은 14개 교회를 모두 합하여 500여 명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전도하여 1,000명의 교인들로 늘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다.

| 회원교회/소속교역자/소속연회/주소/각 교회의 비전 (설립년월일) |

1. 서울농아교회(담임목사 남상석, 부목사 함혜원)/서울남연회(1974.3.3.)

- 서울 강남구 개포로15길 21
- 서울, 수도권 지역의 농아인 복음화
- 농아인 목회자 양성과 국내외의 농아교회 개척을 통한 농아인 영혼 구원
- 괌, 우간다, 중국, 아르헨티나 지역의 농아인 선교

2. 서산농아교회(담임목사 한명숙)/충청연회(1983.12.4.)

- 충남 서산시 학동9로 24

- 서산, 태안 지역의 농아인 복음화
- 예수님을 본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3. 원주농아교회(담임목사 이관혁)/동부연회(1988.2.21.)

- 강원도 원주시 원문로 186-3
- 원주, 횡성지역의 농아인 복음화
- 문자와 수어교육을 통한 성도들의 삶의 질 향상

4. 부천농아교회(담임목사 노관수)/중부연회(1990.2.4.)

-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 355
- 부천지역의 농아인 복음화
- 농아인만의 문화를 신앙과 접목시켜 효율적인 선교를

5. 주사랑농아교회(담임목사 모연환)/서울연회(1993.3.7.)

- 서울 은평구 통일로 712-1, 5층
-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사명의 고취
-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

6. 좋은교회 농아부(담당목사 강장호)/충북연회(1995.10.5.)

- 충북 청원군 남이면 석판2길 6-24 좋은교회
- 청주지역 농아인 복음화
- 직업 재활과 교육, 스포츠를 통한 선교영역 확대

7. 인천농아교회(담임목사 이경민)/중부연회(1997.1.12.)

-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186, 2층
- 인천지역의 농아인 복음화

8. 공주농아교회(전도사 서미례)/남부연회(1998.11.1.)

- 충남 공주시 월당이길 19
- 공주와 인근 지역의 농아인 복음화
- 말씀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 문자와 수어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9. 영등포농교회(담임목사 이호구, 네팔선교사 백선수)/서울남연회(1999.10.31.)

-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20길 10
- 영등포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지역의 농아인 복음화
- 스리랑카, 네팔 지역의 농아인 선교

10. 아산농아교회(담임목사 원정빈)/충청연회(2003.6.8.)

- 충남 아산시 삼동로 28번길 55-4
- 아산, 천안지역의 농아인 복음화
- 신앙으로 장애를 극복, 섬기는 삶으로
- 문자와 수어교육을 통해 농아인의 삶 향상

11. 포도원농아교회(담임목사 조재형)/호남선교연회(2005.5.27.)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새싹길 81-19
- 수어와 문자 교육을 통한 말씀공부
- 농아인 자녀의 신앙지도

12. 논산농아교회(담임목사 유형재)/남부연회(2006.5.14.)

- 충남 논산시 해월로 188, 2층
- 논산지역의 농아인 복음화
- 성경공부를 통해 섬김의 삶으로
- 문자와 수어교육으로 성도들의 삶의 질 향상

13. 사천 한려농아교회(담임목사 이태훈)/삼남연회(2007.5.29.)

- 경남 사천시 삼상로 453-23
- 사천, 삼천포, 고성지역의 농아인 복음화
- 사랑의 실천으로 선교하는 교회

14. 창원 빛농아교회(담임목사 김종인)/삼남연회(2017.1.22.)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61-1, 3층
- 창원지역의 농아인 복음화

IV. 주요사업

1. 연합수련회

농아인 성도들의 영성수련을 위해 2년마다 감농연에 속한 모든 회원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는 수련회(2박 3일 혹은 3박 4일)가 열린다. 2020년은 연합수련회가 열리는 해였으나 코로나-19로 취소되어 2022년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2. 경로수양회

매년 감농연에 속한 회원교회의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국내의 명소들을 찾아 여행하면서 기도회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교제를 나눈다.

3. 교역자영성수련회

일 년에 2회, 감농연 소속 교역자 및 신학생들이 건강한 목회와 영성을 위하여 함께 공부하고, 목회의 보람과 어려움을 나누는 시간이다. 영성수련을 위해 꼭 필요한 강사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한다.

4. 연합체육대회

격년으로 열리는 연합체육대회는 장애인선교주일을 기념하여 개최된다. 여러 가지 종목의 체육 경기와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 등으로 감농연 소속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의 소외를 극복하고 화합하는 즐거운 시간이다.

5. 수화찬양제

연합체육대회와 함께 2년마다 열리는 수화찬양제는 제5회가 2017년 4월 23일 평택 서정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감농연 회원교회들이 정성껏 준비한 수화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청인(聽人) 교우들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다.

6. 정기총회

매년 1~2월 사이에 감농연 정기총회가 열린다. 회원교회 교역자들과 총회대표들이 참석하여 회칙개정, 임원개선, 신학생 선발, 결산 승인 및 예산안 통과, 본회 기본 사업계획 등에 관한 것을 처리한다.

7. 교역자 월례회

매월 감농연 교역자들이 회원교회들을 돌아가며 월례회로 모인다. 지방에서 모이는 교역자 월례회와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예배와 회의를 하며 감농연 사업과 개 교회의 상황과 일정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

8. 청년부연합수련회

해마다 감농연 소속의 청년들이 모여 수련회를 갖는다. 농아인 청년들에 대한 전도의 사명을 되새기고 함께 교제하며 비전을 공유한다.

9. 남,여선교회 단합대회

감농연에 속한 모든 교회의 여선교회와 남선교회 회원들이 일 년에 1~2회 모

여 등반대회, 유적지 답사,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다.

10. 세계감리교농아선교대회

2005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제1회 세계감리교농아선교대회가 열렸다. 세계 각국의 농아감리교회의 연합과 교회 간의 유대강화를 통한 농아선교를 목적으로 4년마다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감농연은 제2회 대회를 한국으로 유치하여 2009년, 서울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감리교 농아인들과 함께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2013년, 제3회 대회는 케냐에서 개최되었고 6명의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2017년, 제4회 대회는 미국 텍사스에서 개최되어 감농연 목회자들과 평신도 18명이 참가하여 선교의 비전을 나누었다. 2021년 제5차 대회는 꿈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취소되고 2025년으로 연기되었다.

11. 농아선교주일성수

매년 6월 중 한 주일을 농아선교주일로 정하고 국내외 농아선교를 위해 헌금한다. 정성껏 모인 헌금은 스리랑카, 괌, 우간다, 중국, 아르헨티나, 일본 등의 선교지를 돕는 한편 어려움을 당한 감농연 소속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V. 농아선교후원회

감농연의 설립과 때를 같이하여 1992년 8월, 농아인 교역자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한 교단 내 목회자들과 뜻을 같이하는 성도들, 일반인들이 힘을 모아 농아인 신학생들의 장학금을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신학생 장학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농아인 신학생의 장학금 마련보다 더 큰 농아선교에 대한 사명을 깨닫고 후원회의 명칭을 ‘농아선교후원회’로 바꾸고 당시 선교국 총

무이셨던 강병훈 목사(남산교회 원로)를 모시고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현재 농아선교후원회는 감농연과 비전을 공유하며 농아인 신학생들의 학비를 후원하는 일을 넘어서 농아선교를 위한 감농연의 여러 가지 활동과 국내외 농아선교를 위한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다.

VI. 감리회 농아교회연합회 비전

1. 비전교회에서 자립교회로
2. 농아선교를 위한 신학생 양성 및 선교사 파송
3. 교단 내 농아교회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4. 농아선교를 위한 교단 내 기관인준

VII. 맺는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농아교회를 세우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고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공평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도 감농연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인천농아교회는...



이 경 민 목사

중부연회 부평서지방 인천농아교회

요즘은 코로나19 유행병 때문에 누구나 살아감의 수고스러움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방역 점검을 위해 관계자가 찾아옵니다. 일전에 마스크로 인해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방역에 만전을 다하기도 합니다. 다만 농아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함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을 묶고 귀를 막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얼굴이 곧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는 입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인천농아교회는 똑같은 청각과 언어의 장애를 가진 이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있습니다. 함께 아픔과 고통을 싸매어 주고 영혼 구령 사역에 목숨을 거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인천농아교회에서 펼치면서 주님이 바라시는 참된 교회를 가꾸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회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농아인들, 곧 선교의 대상이었음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농아교회 교우들은 청각과 언어 장애가 함께 있는 이중 장애인입니다. 한



쪽만 장애를 가진 것 보다는 언어장애도 자연스럽게 안고 있습니다.

평소에 귀가 하는 역할 즉 귀로 듣는 대신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고자 합니다. 또한 입이 하는 역할은 손으로 대신합니다. 손으로 말하며, 더불어 표정을 포함하여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만큼은 눈으로 말씀을 듣고 이해합니다. 손으로는 기도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인천농아교회 교우들은 손으로 말하고 눈으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1. 장애인의 인식

장애인이란 의미는 '몸이나 마음에 장애나 결함이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한자 뜻풀이로는 꺼리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장애인은 불편하고 귀찮은 사람 즉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일반인들과는 구분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 년에 한 번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저희 기독교에서는 장애인선교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 날만 장애인선교주일이 아니라 날마다 함께 서로 사랑을 베푸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예수님과 장애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장애인이 꼭 필요한 존재이었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많은 장애인들과 접촉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애인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단순히 동정과 구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장애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들을 하나의 정상적인 인간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종종 잘못된 편견으로 무언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입니다.

3. 성경 속의 장애인 이해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 안에서 장애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장애인 주변인이거나 소외된 자가 아닌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 대다수가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4. 인천농아교회 사명의 자각

① 농아인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임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농아인 선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기초로 한 인간 존엄성을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②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농아인도 내포된다는 것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확실히 증거 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임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택해서

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5. 우리의 숙제

그리스도인을 교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근본적으로 모두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복음 앞에서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여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들도 해야 합니다. 장애인도 함께 살아가야 할 선교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많은 장애인과 함께 다니시며 사역하셨습니다.

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그들과는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닌 그저 이름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광림교회 사랑부는...



김 기 민 목사

광림교회 사랑부 담당 목사

1. 요람에서 무덤까지

광림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방합니다. 유아 및 청소년(광림 어린이 집, 광림 사이닝키즈, 광림 사이닝 스쿨, 광림 사이닝 유스), 성인(트리니티 성서 대학원, 어번턴트, 츠즈라이프), 노인(광림 SEC 평생 대학, 사랑의 집 실버타운, 감람동산 추모공원)까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성도의 출생과 죽음, 삶의 여정을 교회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2. 감리교 최초의 장애인 부서

1991년 9월 거동이 불편한 7명의 발달장애인 학생들과 교사가 모여 예배드림으로 사랑부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문 협력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1992년부터 특강을 통해 학부모 상담을 시작했고, 1993년 3월 만 4세에서 7세까지의 정신지체, 자폐, 학습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교실’을 개원했습니다. ‘사랑의 교실’은 장애아동의 조기 교육 중요성을 인식시켰습니다. 2000년 11월 사

랑부는 학생들이 주로 집에만 있어 외부에서의 문화 활동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토요일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미술, 음악, 볼링, 요리, 영화관람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03년 1월 광림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웨슬리 교육관이 개관하였고, 사랑부는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웨슬리 교육관 이전 후 장애인 주중 교육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었고, '사단법인 광림'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랑부 설립 30주년으로, 장애인 150명과 교사 130명의 부서로 부흥하였습니다. 장애인 연령에 따라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로 나뉘며, 주일예배는 오전 9시, 오전 11시로 드리고 성경공부 교재를 자체적으로 발간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소그룹 활동

① Call up (콜업 댄스팀)

- 댄스로 찬양을 배우며, 기도 훈련과 삶을 나누는 모임.
- 일시 : 매주 주일 오후 1~2시
- 장소 : 웨슬리관 2층 사랑부 예배실

② 트리니티 성경공부

- 만들기와 게임을 통해 말씀을 배우는 모임.
- 일시 : 봄학기, 가을학기 2·4째주, 오후 2~3시
- 장소 : 웨슬리관 2층 사랑부 예배실

③ L.B.T 농구팀

- 신체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다지는 모임.
- 일시 : 매월 1·3째주, 오후 2~3시

④ L.S.T 축구팀

- 축구를 통해 운동하고 교제하는 모임.
- 일시 : 매월 4째주, 오후 2~4시

⑤ 퀸즈 클럽

- 손바느질, 기초 메이크업 등 다양한 수업을 통해 아름다움을 증진시키는 모임
- 일시 : 매월 1, 3째주



• 장소 : 웨슬리관 2층 아트스튜디오

*선교 및 사역

① 사랑 나눔 찬양 선교단

장애인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 성악과 오카리나 연주로 전문 찬양 사역자를 육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교팀입니다. 현재 국내 군 선교, 학교선교, 복지관 선교, 대만과 일본 선교, 유럽 공연 등에 참여하며 세계적인 찬양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② 사랑부 성가대

찬양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성가대로서 예배의 문을 열고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찬양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비전

광림교회 사랑부는 발달장애인 사역의 허브 공동체가 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30년의 발달장애인 신앙교육 경험과 인프라를 가지고 개체교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부서 설립 및 성장을 돕는 부서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시설의



확충과 장애인 인식의 극복을 꿈꾸며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모든 장애인들이 구원받는 그 날까지 장애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3. 사단법인 광림

2012년에 ‘사단법인 광림’을 설립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치료, 교육, 훈련, 자립 생활 등 장애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림주간보호센터

2005년 11월 개소된 광림주간보호센터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성인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웨슬리교육관 2층에서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까지 일상생활훈련, 재활프로그램, 여가활동,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재활교육을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주간보호센터

2015년 3월 개소된 예수와주간보호센터는 30대 이상의 성인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이 보다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웨슬리교육관 1층에서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까지 사회 자립훈련, 돌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림이레센터

2005년 3월 장애인 주중 교육프로그램이 '광림 이레센터'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학생들에게 미술치료, 음악치료, 언어치료를 중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미술 치료와 미술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전시회는 현재까지 총 26회의 전시회로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일본 발달장애인 기관 소속 조이클럽을 초청하여 국제전시회를 개최하였고, 2014년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제2의학과관 작품설치, 2016~7년 춘천 광림노인전문요양원에 작품을 설치하였습니다. 광림이레센터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재능을 수많은 노력과 시도, 끝없는 훈련을 통해 장애라는 '할 수 없음'의 선입견을 뛰어넘어 '가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4.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영적 장애인이며, 예수님이 전한 생명의 복음은 고난과 장애, 질병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장애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요 9:3) 장애인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 담긴 인격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1년 52주가 장애인 주일이요, 1년 365일이 장애인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모든 장애인과 일평생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기에 그들이 존귀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동적인 현장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